

글로벌 공급망 인사이드

Global Supply Chain Insight

금주의 공급망 Insight

○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

- 【IRA, 미국】美, 전기차 보조금 가이드선 시행 및 적격 차종 목록 공개
- 【협정, 인니·미국】인니, 미국에 IRA 혜택 위한 광물 협정 제안 움직임
- 【회담, 미국·EU】美-EU 핵심 광물·철강 등 현안 집중 논의
- 【배터리, 일본·미국】日 파나소닉, 미국 세 번째 배터리 공장 설립
- 【광물, G7】G7 중요 광물 확보 10조원 투자, 中 의존 탈피
- 【반도체, 러시아】러시아, 中 경유해 美 반도체 1조원 수입
- 【무역, 중국·대만】中 상무부, 대만지역의 對中 무역 제한 관련 조사 착수
- 【대두·옥수수, 아르헨】세계 5대 대두·옥수수 생산국 아르헨티나 수확량 급감
- 【설탕, 세계】설탕 가격 급등, 슈거플레이션 우려

○ 공급망 뉴스 더하기

- ① 美 환경보호청(EPA),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발표
- ② 美 상무부, 한국산 철강의 베트남 우회덤핑 예비 판정

○ 공급망 돌보기

- ① 2023년에 주목할 모빌리티 산업의 10대 이슈 1편

○ 공급망 전문가

- ① 중국의 지역별 그린수소 산업 전망

○ 공급망 소식통

- ① '23년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
- ②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(GPP) 2023 개최 안내
- ③ 한국무역협회 지원사업 소개

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

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

○ 최신 공급망 해외이슈

■ [IRA, 미국] 美, 전기차 보조금 가이드선 시행 및 적격 차종 목록 공개

- 美,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드선 4.18일(현지시간) 부 시행 발표, 지침은 6.16일까지 60일 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 ⇨ 목록 원문 확인([클릭](#))
 -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조항에 따라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 대상,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,500달러 구매 보조금 지급
 - * △북미 제조·조립한 배터리 부품 3,750달러, △미국 또는 FTA 체결국 핵심광물 3,750달러
- 세부 시행 규정(NPRM, 3.31)에 따라 보조금 적격 차종 16종으로 갱신하여 4.18일 부 적용 ⇨ 목록 원문 확인([클릭](#))
 - 닛산, 폭스바겐, 현대 등 외국산 자동차 제조업체 및 리비안 전 차종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
 - 최대 7,500달러 또는 부분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포드, GM, 테슬라 등 미국 제조업체 16개 모델로 목록 원문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
 - 북미에서 생산되어 기존 재무부 차량 목록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제외된 모델은 Audi, BMW, 현대, 닛산 등 제조업체의 차종 포함
- 일부 외국산 자동차 제조업체(현대·닛산 등)는 미국에 공장 설립 중으로, 향후 적격 차량 목록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

출처: 이투데이(23.4.18)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

■ [협정, 인니·미국] 인니, 미국에 IRA 혜택 위한 광물 협정 제안 움직임

-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루훗 판자이탄 해양·투자 조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美 정부에 니켈·알루미늄 등 배터리용 주요 광물에 대한 '제한적 무역협정(Limited Free Trade)'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
 - 미국이 최근 일본과 체결한 무역협정과 유사한 형태로 인도네시아 EV 핵심 광물이 미국 IRA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의 협정 체결 계획
- 인도네시아는 '22년 기준 전 세계 생산량 가운데 37%를 차지하는 세계 1위 니켈 생산국이나 미국과는 FTA 미체결국임
 - 현 IRA 규정에 따르면 니켈 채굴 및 단순 제련은 인도네시아에서, 그 외 과정은 미국·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진행해야 IRA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터리 '엔드 투 엔드(end to end)*' 사업을 구상하던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 육성 개발에 차질 발생
 - * 니켈 채굴부터 정련·제련·전구체·양극재·배터리셀 생산까지 상방에서 하방 산업을 아우르는 배터리 사업
- 인니 정부는 미국과 니켈, 알루미늄, 코발트, 구리 등 광물에 한해 FTA를 체결하여 IRA에서 요구하는 FTA 지위를 얻고 배터리 산업육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

출처: 로이터(23.04.10), 아시아경제(23.04.10)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

■ [회담, 미국·EU] 美-EU 핵심 광물·철강 등 현안 집중 논의

-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(USTR)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수석부집행위원장(통상담당)은 워싱턴 회동(4.13)에서 양측 현안인 (1) 핵심 광물 협정, (2) 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글로벌 합의(GASSA), (3) 美-EU 무역기술위원회(TTC) 등 논의 진행
 - (美-EU 핵심 광물 협정) 돔브로브스키 EU 수석부집행위원장은 “IRA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美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”라고 밝힘에 따라 타이 미국 무역대표(USTR)는 “핵심 광물 협정을 매우 진지하게 논의 중이며 누구로부터, 어떻게 생산되어야 하는지까지 검토하는 중”이라고 발언
 - (GASSA) 양측이 협상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고, 10월까지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 밀도 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힘
 - (美-EU 무역기술위원회) 디지털 수단을 통한 무역 촉진, 범대서양 지속가능한 무역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세부적인 주제와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타이 미국 무역대표(USTR)는 5월 말 스웨덴에서 열리는 TTC 장관급 회의에서 “친환경 기술에 공통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무역 장벽 완화를 기대한다”고 발언

출처: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

■ [배터리, 일본·미국] 日 파나소닉, 미국 세 번째 배터리 공장 설립

- 지난 4.16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日 파나소닉*과 미국 오클라호마주는 세 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과 보조금 지급 조건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였고, 생산된 배터리는 美 완성차업체인 스틸란티스**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음
 - * 파나소닉은 현재 미국 네바다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며, 캔자스에도 '24년 가동을 목표로 배터리 공장 건설 중
 - ** 스틸란티스: 크라이슬러, 지프 등 14개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완성차업체로, LG에너지솔루션·삼성SDI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 캐나다와 미국 인디애나주에 배터리 공장 건설 중
-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‘이번 거래로 50억달러 규모의 투자와 3,5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’이라고 언급
- 파나소닉의 오클라호마 공장 신설은 북미 시장 점유율을 확고히 지키려는 의도로 해석되며, 이로써 원통형·삼원계(NCM) 배터리 직접 경쟁자인 LG에너지솔루션과의 북미 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
 - *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지난해 1월~10월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(48%)를 기록하였고, LG에너지솔루션(18%), CATL(14%) 등이 그 뒤를 이음

출처: 조선비즈(23.04.17), 디지털투데이(23.04.17)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

■ [광물, G7] G7 핵심광물 확보 10조원 투자, 中 의존 탈피

- G7* 기후·에너지·환경 장관회의(4.15일~4.16일)에서 광산 공동개발 등에 1조엔(약 10조원)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는 행동계획이 마련됨
 - * G7: 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캐나다, 일본 7개국과 EU가 참여하는 합의체
- 전기차 배터리 및 반도체에 사용되는 코발트, 리튬, 니켈 등 핵심광물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며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,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등 행동계획의 목적임
 - * 현재 핵심광물의 제련 및 가공 공정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음

- 아울러, 폐배터리 등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국제적인 체계 또한 정비할 예정
 - 개별 국가 단위로 각국 내에서는 소량의 핵심광물만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감축하려는 의도
 - 이외에도 △장기 수급 예측 정밀화, △핵심광물 공급 중단 시 대응책 마련, △핵심광물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등 총 5개 부문 협력을 추진할 계획
 - 논의된 행동계획은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 경제산업상이 제안하여 G7 환경장관 공동성명과 별도로 채택됨
- 출처: 연합뉴스(23.04.14)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

■ [반도체, 러시아] 러시아, 中 경유해 美 반도체 1조원 수입

- 4.12일 일본 닛케이아시아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,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, 수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반도체가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도
 - 닛케이아시아 분석*에 따르면, 러시아가 '22년 2~12월 총 10억 7,756만 달러(1조 4,245억 원) 규모의 반도체를 수입했으며,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의 수입 총액 대비 3배 규모
 - * 닛케이아시아는 인도 리서치 기업 익스포트 지니어스(Export Genius)로부터 러시아 세관 데이터를 입수하여 러시아의 반도체 수입 기록을 분석
 - 총수입액 중 미국산 반도체 수입액은 7억 4,864만 달러에 달하며,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의 수입 총액 대비 2.8배 증가
 - 러시아는 美 제재로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가로막히자, 美 반도체 수입 물량의 75%를 홍콩·중국을 경유하여 우회 수입했으며, 나머지 25%는 튀르키예(6%), 몰디브(6%), 아랍에미리트(4%) 등 국가를 통해 수입
 - 러시아는 홍콩·중국 내 자국 관련 신생기업을 활용했으며, 러시아는 미국의 대러 반도체 수출금지로 인해 무기 제작에 차질이 생기자 미국산 반도체 수입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임
 - * 홍콩·중국 기업은 美 인텔·AMD社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자일링스의 FPGA(미사일에 사용되는 집적회로) 등을 러시아에 판매
- 출처: 닛케이아시아(23.04.12), 아시아경제(23.04.12)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

■ [무역, 중국·대만] 中 상무부, 대만의 對中 무역 제한 관련 조사 착수

- 中 상무부는 4.12일 대외무역법과 대외 무역 장벽 조사 규칙 규정에 따라 중국에 대한 대만의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'무역장벽 조사'를 결정했다고 밝힘
 - 中 상무부는 '23.3.17일 중국 내 상회(商會) 3곳*으로부터 대만 당국이 중국 대륙산 제품에 대해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는 것과 관련한 조사 요청 접수
 - * 중국식품축산수출입상회, 중국오광화공수출입상회, 중국방직품수출입상회
 -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대만의 '對中 무역제한 조치'에 대해 무역장벽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힘
 - 농산품, 석유·금속광물·폐기물연료·코크스·연탄 등 광물·화학 제품, 방직품 등을 포함해 대만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2,455개 품목에 대해 조사 진행 중 (조사 기간: '23.4.12~'23.10.12)

- 이번 조사가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방미와 美 매카시 하원의장 간 회동에 따른 맞대응 조치 가능성이라는 분석 제기

- '22.8월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 대만 방문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만향 천연모래 수출을 잠정 중단하고, 대만 식품업체 100여 곳에 대해 수입 금지령을 내린 바 있으며, '23.2월 누계 기준 중국의 對대만 수입 감소폭이 30.9%로 확대된 상황으로 양안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파급력이 클 수 있어 지속 모니터링 필요

출처: 서울경제('23.04.12)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

■ [대두·옥수수, 아르헨티나] 세계 5대 대두·옥수수 생산국 아르헨티나 수확량 급감

- 4.11일(현지시간) 美 농무부(USDA) 월간 세계 곡물 수요·공급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의 대두·옥수수 생산량이 극심한 가뭄 때문에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전망

- '22~'23년 아르헨티나 대두 생산량이 23년 만에 최저치인 2,700만 톤 규모로 예상, 이는 '99~'00년 2,120만 톤 이후 가장 작은 규모
- 옥수수 생산량은 3,700만 톤으로, '17~'18년 3,200만 톤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

- 라나시온과 텔람통신 등 아르헨티나 언론은 로사리오 곡물거래소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폭염과 가뭄에 따른 곡물 피해 규모가 국내총생산(GDP)의 3%에 해당하는 190억 달러(25조원)에 이를 것으로 전망

- 이로 인한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 감소액은 139억 달러(18조원) 규모로 추정됨

- 아르헨티나 작황 부진에 더불어 주요 대두 수입국인 중국이 돼지고기 수요 증대를 위해 단백질 사료에 들어가는 대두 수입을 늘릴 수 있어서 가격상승 압력 또한 큰 상황

- 로이터에 따르면 실제 美 시카고상품거래소(CBOT) 대두 선물가격은 9년 만에 최고치 기록

출처: 연합뉴스('23.04.12), 한국경제TV('23.04.12)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

■ [설탕, 세계] 설탕 가격 급등, 슈거플레이션 우려

- 올해 들어 세계 설탕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설탕 가격 상승이 식품 가격 전반을 끌어올리는 '슈거플레이션(설탕+인플레이션)'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

- 유엔 식량농업기구(FAO)에 따르면 '23년 3월 세계 설탕 가격지수*는 127.0**으로 '22년 10월에 비해 17% 상승

* 세계 설탕 가격지수: 2014~2016년 세계 설탕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지수

** ('22.10월) 108.6 → ('22.12월) 117.2 → ('23.2월) 125.2 → ('23.3월) 127.0

- 런던국제금융상품거래소에서 4.11일 공시한 백설탕 5월 선물가격은 톤당 702.3달러로 '11년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
- 설탕 가격 상승의 원인은 인도, 태국, 중국 등 주요 설탕 생산국의 생산량 감소로,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인 인도는 이상 기온과 폭우 등으로 생산량이 급감하자 2년째 설탕 수출량을 제한 중

- 설탕 가격 상승으로 식품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지며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

출처: 블룸버그('23.04.16)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

○ 공급망 뉴스 더하기 ① : 美 환경보호청(EPA),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발표

◆ 美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강화했다. 이에 따라 美 환경보호청(EPA)은 4.12일(현지시간)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을 공개한 바,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.

■ 美 환경보호청(EPA),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발표(4.12)

- 美 백악관은 향후 차량 운송의 미래가 '전기'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, 미국 내 전기차 보급 가속화 기대
 - 이번 EPA 규제안으로 '32년 신규 소형 차량 판매의 67%, 신규 중형 차량 판매의 46%가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으며, 차량 수명 기간이 연장되어 평균 12,000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 기대
 - 강화된 규제안으로 미국 연간 배출량의 두 배인 약 100억톤의 CO2 배출량을 감축하는 동시에 200억 배럴 상당의 미국 석유 사용량 감소 효과 전망
- 또한,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로 제조업체 배출 규제 심화가 예상되며, 이번 규정은 6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가진 후 시행 예정
 - 연방정부는 이번 규제로 '자동차 제조업체의 무공해 차량 전환'을 가속화하고, 공기질 개선과 기후 위기 대응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
 - * 미국 바이든 정부는 '30년까지 '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진 중

■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

① 소형 및 중형 차량(승용차) 대상 배기가스 기준 강화안

- '27~32년식 차량 대상으로 이산화탄소, 비메탄계 유기가스, 질소산화물, 미세먼지 등 배기가스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6년간 단계적으로 감축 명시
 - '32년 소형 차량의 업계 전체 평균 목표는 82g/마일 CO2로 '26년 기준 56% 감소 권고
 - * '21년 347g/마일 → '26년 161g/마일 → '32년 82g/마일
 - 질소산화물 및 기타 유기가스의 경우 '32년에는 기준이 12mg/마일, 미립자물질(그을음)은 현 기준보다 92% 감소 권고
 - 중형 차량의 경우, '32년까지 '26년 기준 44% 감소한 평균 275g/마일의 CO2 배출량 목표 제한

②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 및 품질보증기준 강화

- 완전전기차(BEV)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(PHEV) 배터리는 차량 운행 5년 또는 주행거리 6.2만 마일에서 원래 배터리 성능의 80%를, 8년·10만마일 동안 70%를 유지하도록 하는 품질 유지 조건을 명시

③ 대형 화물 트럭 대상 배출가스 기준안

- 대형 운송차량(다목적 운송트럭, 대중교통, 학교버스) 및 일반 화물 운반용 트럭 대상으로 '더욱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안' 및 '무공해 트럭의 배터리에 대한 보증 요구 강화' 실시, 소비자가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공 의무 명시
 - 쓰레기 수거차량, 학교 버스 등 직업용 차량의 50%, 화물트럭터 및 트레일러 25%가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, '55년까지 18억톤 CO2 배출 감소 효과 예상

○ 공급망 뉴스 더하기 ② : 美 상무부, 한국산 철강의 베트남 우회덤핑 예비 판정

◆ 美 상무부는 4.12일(현지시간) 한국산 철강의 베트남 우회덤핑 예비판정 2건(스탠다드 강관, 연벽사각파이프)을 관보 게재했다. 최근 우회덤핑 예비판정 사례를 살펴보고, 우회덤핑 개념 및 미국 반덤핑(AD)·상계관세(CVD) 우회덤핑 조사 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.

■ 美 상무부, 한국산 철강의 베트남 우회덤핑 예비판정 발표(4.12)

- 美 상무부는 4.12일(현지시간) 한국산 철강의 베트남 우회덤핑 예비판정 2건을 관보 게재
- 미국으로 수입되는 베트남산 ① 스탠다드 강관(Circular Welded Non-Alloy Steel Pipes)과 ② 연벽사각파이프(Light-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)가 한국산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예비 판정
- 해당 2건 우회덤핑 조사는 '22.8.4에 개별 개시됐으며, 최종 판정은 예비 판정 발표 후 150일 이내 내리도록 법률 규정

품명	세부 판정 내용
스탠다드 강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스탠다드 강관 제품이 한국산 열연 강재(hot-rolled steel)를 사용하여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었다고 예비 판정 (원문 클릭) - 의무 조사 대상은 SeAH Steel VINA Corporation (SeAH VINA)과 Vietnam Haiphong Hongyuan Machinery Manufacturing Co., Ltd.(Vietnam Haiphong) 이상 2개 기업
연벽사각파이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연벽사각파이프 제품이 한국산 열연 강재(hot-rolled steel)를 사용하여 미국으로 우회 수출했다고 예비 판정 (원문 클릭) - 의무 조사 대상은 Hoa Phat Steel Pipe Company Ltd. (Hoa Phat)과 Vina One Steel Manufacturing Corporation (Vina One) 이상 2개 기업 * 조사 대상 기업인 Hoa Phat이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상무부는 '불리한가용정보(Adverse Facts Available)' 적용

■ 우회덤핑 개념 및 미국 반덤핑(AD)·상계관세(CVD) 우회덤핑 조사 규정

- 우회덤핑(circumvention dumping)이란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생산 및 선적방법을 변경하여 기존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로, 미국과 EU를 포함한 33개 국가가 자국법에 우회덤핑 방지 규정을 도입하여 우회덤핑이 이루어진 상품에까지 기존 반덤핑조치를 확대 적용

미국 반덤핑(AD)·상계관세(CVD) 우회덤핑 조사 규정

- 상무부 규정 수정(21.9.20)을 통해 AD·CVD 우회 조사 및 집행 강화
 - 신규 규정(19 C.F.R § 351.226)은 '21.11.4부 발효, 기존 우회 조사의 절차, 투명성 규정 구체화
- (개시) 이해 당사자(유관 기업 등)가 청원을 접수하거나, 상무부 자체 판단으로 조사개시 가능
- (판정) 상무부 예비판정 ⇒ 상무부 최종 판정 ⇒ 상무부, 세관국경보호국(CBP)에 집행명령
 - * 반덤핑·상계관세 조사와 달리 국제무역위원회(ITC)의 산업 피해 조사 없이, 상무부 단독 결정
- (일정) 청원 접수 후 30일 내 상무부 조사개시 ⇒ CBP 청산 중단 및 현금예치 명령 ⇒ 상무부 예비판정(조사개시 150일 내) ⇒ 최종 판정(조사개시 300일 내) ⇒ 최대 65일 판정 기한 연장 가능
- (대상) 상무부는 특정 제조사수입기업 대상 또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 명령 가능

○ 공급망 뉴스 돋보기 : 2023년에 주목할 모빌리티 산업 10대 이슈①

◆ 블룸버그는 전기차 등 모빌리티 시장에서 2023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를 정리한 <EVs and New mobility _10 Things to Watch in 2023>(23.1월)을 발표했다. 이번 호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관한 5가지 이슈를 알아보자.

<모빌리티 산업 시리즈>

(54호) 모빌리티 산업 5가지 이슈 1편

(55호) 모빌리티 산업 5가지 이슈 2편

■ 블룸버그가 선정한 2023년에 주목해야 할 모빌리티 산업의 10대 이슈

2023년 모빌리티 산업에 주목해야 할 10대 이슈	
1	전세계 전기차 판매실적 갱신, 그러나 증가 속도 둔화
2	BYD 순수전기차 판매 약진, 테슬라를 추월
3	전기차 및 충전기업의 파산과 합병
4	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경쟁에 뛰어드는 미국
5	무공해 전기트럭과 밴의 판매 급등
6	공공 충전기 설치 증가와 관련 이슈
7	평균 배터리 가격의 상승
8	상업용 로봇 택시 서비스 국가의 확장
9	모빌리티에서의 '구독 서비스'
10	항공 및 운송 분야의 탈탄소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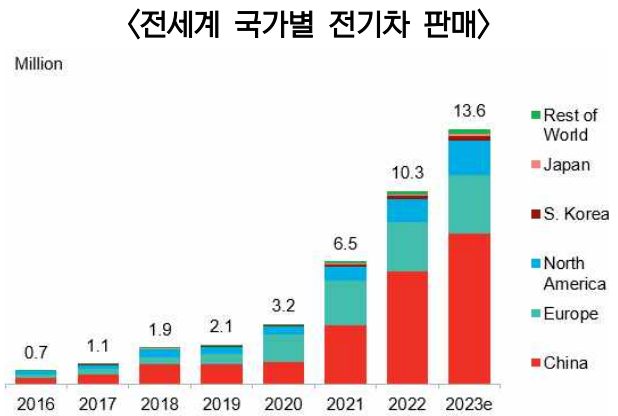
1. 2023년 전세계 전기차 판매는 증가, 증가 속도는 둔화

■ '23년 전세계 전기차 판매대수는 전년대비 330만대 증가한 1,360만대를 기록할 전망

- 다만 '23년 전년대비 증가율은 '21년(104%)과 '22년(58%) 보다 둔화된 32%

■ '23년 전기차 중 순수전기차의 비중은 75%에 달할 전망

- 순수전기차 비중은 '21년 69.7%에서 '22년 72.1%, '23년 75%로 매년 증가추세



2. BYD(중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)의 순수전기차 판매 약진, 테슬라를 추월

■ '23년 대부분 기간은 테슬라가 순수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것

- 테슬라는 30-40%의 생산량 증가 전망(독일 베를린, 미국 텍사스 공장 가동)
- 특히 테슬라 '모델 Y'은 '23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될 것이며, 모든 유형의 차량 중 상위 3대 모델로 선정될 전망
- 테슬라 전용 슈퍼차저(Supercharger) 충전소는 공공충전소가 덜 발달된 북미에서 매력적인 요소

■ 그러나 블룸버그는 '23년 말 BYD가 테슬라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 (폭스바겐은 3위)

- 지난 2년 동안 BYD는 모델 라인업을 확장하고 다양한 국가로 진출, 제조능력을 빠르게 확대해 '22년 총 플러그인 판매(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)에서 테슬라를 추월했으며, 순수전기차 판매 또한 급증*

* 32만대('21년)→ 91만대('22년)

3. 자동차 및 충전기업의 파산과 합병

■ 스타트업 자동차 제조사의 증가로 세계 자동차 생산기업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나, 2023년에는 감소할 전망

- 2023년 경기침체와 EV 판매 성장둔화로 인해 많은 자동차 제조사가 자금난을 겪고 목표달성을 하지 못해 파산 및 합병될 가능성

■ 충전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산업의 생태계도 최근 많은 투자유입으로 '23년 총 누적 투자가 1,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나 초보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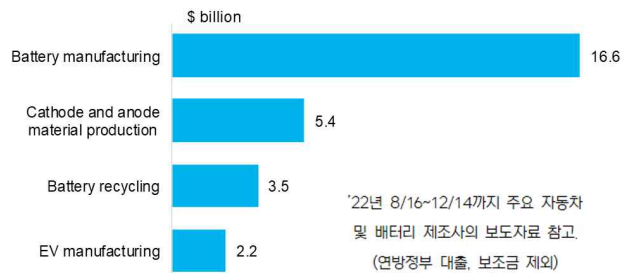
- 그나마 공공 충전기 인프라 구축이 시작되는 미국은 비교적 환경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

4.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경쟁에 참여하게 되는 미국

■ '22년 8월 IRA 발표 후 민간 기업에서 북미의 배터리, 소재, 재활용, 전기차 부문에 투자를 발표한 금액은 280억 달러

- 블룸버그는 향후 8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북미 배터리 공급망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

〈IRA 발표 후 계획된 북미向 투자〉



5. 무공해(Zero emission) 밴과 트럭의 판매 급등

■ '23년 전세계 무공해 밴과 트럭의 판매량은 '20년 이후 약 4배 증가한 56만대를 기록

- 판매된 차량 모두 배터리 전기차량으로서 이 중 1,400대는 중국 중심으로 판매되는 연료전지 대형트럭

〈무공해 상업용 차량의 판매〉



○ 공급망 전문가 : 중국의 지역별 그린수소 산업 전망

- 中國氫能聯盟研究院, “中國 2030年 可再生氫 100 發展路線圖(22.6)”을 요약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포커스(22.12.26)의 일부 내용 발췌 및 재정리

◆ 중국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수소연맹은 '중국 2030년 그린수소 100 발전 로드맵'을 '22.6월에 발표하였다. 동 로드맵에서는 전반적인 중국 그린수소 산업의 성장 방향과 그린수소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2030년까지의 전망도 함께 제시하였다.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

■ 중국 그린수소 산업의 성장 전망

- 향후 10년간 중국의 그린수소 산업은 △ 지역 중심, △ 대규모화, △ 단계별 대체하는 방향으로 성장 예상
- (지역 중심) 장거리·대량 수소 저장·운송 비용을 단기간에 낮추기 어렵고, 수소생산 자원의 분포 및 수소 수요처, 기술, 경제성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'30년까지는 지역 중심으로 수소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
- (대규모화) 기술 혁신 및 비용 절감을 위해서 '30년까지 설비 대규모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
 -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)와 국가에너지국(NEA)은 대규모 풍력·태양광발전 단지 건설 및 다양한 에너지를 상호 연계한 청정에너지기지 건설 정책을 수립하고 풍력·태양광·수력·화력·저장 등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을 추진 중
 - 대규모 발전단지를 기반으로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-에너지저장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그린수소 기반의 탈탄소 산업단지 모델을 구축이 가능
- (단계별 대체) 중국의 3060목표(30년 탄소정점·'60년 탄소중립) 설정으로 수소 공급망의 청정화가 주축이 되었지만, 경제성과 수요 전망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그린수소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
 - (초기 단계) 부생수소 자원이 풍부한 지역 중심으로 생산 비용이 낮고, 수송이 편리한 부생수소 중심으로 생산
 - (성숙 단계) 기술 성숙과 재생에너지발전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수소 생산방식을 그린수소로 대체

■ 지역별 그린수소 산업 전망

- 전통산업의 전환 속도, 자원 부존량, 그린수소 활용 정도 등을 고려하면 '30년 중국의 그린수소 산업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
- (화북·화남) 수소산업은 수소연료전지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며, 대형 철강기업들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
 - '30년까지 화북·화남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발전 자원의 이점을 활용하여 친환경 수소생산단지를 건설할 계획
 - 화북지역은 '30년까지 20.2GW의 전해조 설비용량이 필요하고 화남지역은 13.9GW가 필요하며, 그린수소 생산량은 화북지역이 121만 톤, 화남지역이 78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
- (화동·화중) 수소산업은 주로 장각 삼각주 지역 및 산둥, 허난, 우한 지역에 밀집
 - 화동지역은 상하이 수소연료전지차 시범지역을 토대로 항구 운송, 물류, 수송 등에서 수소연료전지 수송수단을 보급하고 대규모 그린수소 활용단지를 구축할 예정

- 산둥지역은 수소산업이 발달된 곳으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수소 시범사업을 통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수송 및 화학 부문에서 종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, 단기적으로는 대량의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동시에 그린수소 대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,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를 생산
- 화중지역은 인구밀집도가 높고 수송 요충지이므로 수송부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

〈중국의 지역별 그린수소 산업 특징 및 전망〉



지역	그린수소 공급원	그린수소 부문별 수요처	지역 내 운송방식	장애요인	2030년 전망	
					설비 (GW)	생산량 (만 톤)
화북	풍력발전	수송, 철강	탱크로리, 파이프라인	풍부한 부생수소와 그린수소 간 경쟁	20.2	121
화남	수력 및 해상풍력	수송	탱크로리	녹색발전의 높은 비용	13.9	78
화동	해상풍력 및 소규모 풍력·태양광	수송, 화학	탱크로리, 파이프라인	풍부한 부생수소와 그린수소 간 경쟁	18.4	110
화중	수력	수송	탱크로리	녹색발전 자원 부족	8.4	47
서북	풍력·태양광(대규모)	철강, 화학	파이프라인, 액화수소	높은 생산설비 투자 수요	24	264
동북	풍력·태양광(대규모)	화학	파이프라인	생산지와 수요지 간 거리	9.7	68
서남	수력	화학	탱크로리, 파이프라인	분산되어 있는 신규사업	7.5	82

- (서북) 신장 등에는 화석연료, 금속광산, 토지 등의 자원과 풍력·태양광 자원이 풍부하며, 전력 수요가 타 지역보다는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린수소 생산 기지가 들어서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
 - 낮은 비용으로 중공업을 탈탄소화 할 수 있고, 재생에너지발전 생산·활용 구조를 개선하기 용이하므로 향후 중공업 고도화 및 재생에너지발전 확대 등으로 인해 중국 최대의 그린수소 생산·활용 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
 - '30년에는 서북지역 전해조 설비용량은 24GW로 확대되어 연간 그린수소 생산량이 264만 톤에 도달할 전망
- (동북·서남) 정제·합성 암모니아 등 화학산업은 경쟁 심화, 원자재 가격 상승, 저탄소로의 전환 가속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청정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부생수소를 점차 그린수소로 대체해야 함
 - 동북지역은 풍력·태양광 자원, 서남지역(쓰촨성 등)은 수력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린수소 생산에 경제성이 있음
 - 지역별 수소 수요를 고려하면, '30년 동북지역의 전해조 설비용량은 9.7GW, 서남지역은 7.5GW로 확대가 필요하며, 그린수소의 연간 생산량은 동북지역이 68만 톤, 서남지역이 82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

○ 공급망 소식통 ① : '23년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

●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이란?

- KOTRA 주관, 자체적으로 공급망 대응이 어려웠던 소부장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수입처 다변화 지원, 공급망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■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

-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수입기업 대상 대체공급선 발굴부터 현장실사, 샘플수입, 성능검증까지 대체품으로 제조된 제품이 최종 납품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- 지원 대상 : 수급 차질 위험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처 다변화를 희망하는 소부장 중소·중견 기업
- 지원 내용 : 대체 공급선 발굴·현장 검증 및 샘플 수입·성능시험
 - (대체 공급선 발굴·현장 검증) 특정국 고의존 등 수입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대상으로 대체 공급선을 발굴하고, 현지 공장 실사를 통해 '대체 공급선 실존 및 해당 품목 실제 생산 여부' 등 검증
 - (샘플 수입·성능시험) 샘플 수입하여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적합성 확인, 최종 납품처 공급 전 단계까지 일괄 지원
- 진행 절차 : 기업선정 → 대체공급선 발굴 지역 선정 → 대체공급선 발굴 및 현장검증 → 샘플수입 → 시험검증 → 결과검증
- 지원 기간 : '23.6월~'23.11월
- 참가 비용 : 무료
- 신청 방법 : (신청기간) '23.4.3(월)~'23.4.28(금) 18시까지
(신청방법) KOTRA 홈페이지 접속([클릭](#)) 및 로그인 → 사업신청 → 「수입처 다변화 지원」 검색 후 신청
- 선정 기준 :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추진 적합성·필요성·효과성 등 종합 검토하여 참여기업 선정
- 문의처 :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/ ☎ 02-3460-7757, 7763 / pacoshin@kotra.or.kr

■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

- 소부장 수출기업이 미국, EU 등 주요 수출국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공급망 표준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
- 지원 대상 : 글로벌 공급망 규범 대응(공급망 실사, CBAM 등)이 필요한 소부장 중소·중견기업
- 지원 내용 : 주요 수출국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공급망 표준 정보 제공 및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* 지원
 - * 기업별 공급망 관리 현황 분석, 개선방안 도출 및 전략 설계, 진단보고서 제공, 전략 내재화 지원
- 진행 절차 : 기업선정 → 기업별 공급망 관리 현황 분석 → 개선방안 도출 및 전략설계 → 진단보고서 제공 → 결과관리 및 후속지원
- 지원 기간 : '23.6월~'23.11월
- 참가 비용 : 무료
- 신청 방법 : (신청기간) '23.4.17(월)~'23.5.4(목) 18시까지
(신청방법) KOTRA 홈페이지 접속([클릭](#)) 및 로그인 → 사업신청 → 「공급망 컨설팅 지원」 검색 후 신청
- 선정 기준 :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추진 적합성·필요성·효과성 등 종합 검토하여 참여기업 선정
- 문의처 :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/ ☎ 02-3460-7764 / pearlkim@kotra.or.kr

○ 공급망 소식통 ② : '23년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(GPP) 2023 개최 안내

■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(GPP) 2023 행사 개요

- **사업명** : 제 56차 ADB(아시아개발은행) 연차총회 연계 「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(GPP) 2023」
- **일시/장소** : '23.5.3(수)~5.4(목) / 송도 컨벤시아
- **주최/주관** :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 / KOTRA
- **협업기관** :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, 한국플랜트산업협회, 서울보증보험, 해외건설협회 등
- **분야** : 수송 인프라(도로, 공항, 항만 등), 에너지(발전·신재생에너지 등), 스마트시티 등
- **프로그램** : ADB 프로젝트 설명회, 1:1 프로젝트 상담회 등
- **참가규모** : (해외) 정부관계자·발주처·EPC 디벨로퍼 40개사 내외 / (국내) 수송 인프라, 에너지,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 150개사 내외

■ 사업 세부 프로그램

일시	장소	행사 주요 내용	협업 기관
'23.5.3(수) 14:00~17:30	송도 컨벤시아 컨벤션 116~118호	ADB 프로젝트 설명회 ① 유망 ADB 프로젝트별 발주처의 세부 계획 및 입찰 전략 설명 ② 정부 지원제도 활용방안 및 사례 발표 [세션1] ADB 중장기 전략 및 우리기업의 ADB 프로젝트 진출전략 [세션2] 도시 주거 여건 개선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[세션3] 튀르키예 대지진 복구·재건 계획 (잠정) [세션4] 민·관 협력을 통한 아태지역 인프라 개발 활성화 [세션5] 정부 사업을 활용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전략	한국수출입은행, KIND, 해외건설협회
'23.5.4(목) 9:00~18:00	송도 컨벤시아 1홀 비즈니스 라운지	1:1 프로젝트 설명회 ① 정부 관계자·발주처·EPC·디벨로퍼 1:1 상담 ② 금융지원 활용 상담, 공공(EDCF) 및 민간자금 활용 상담 ③ AP3F 지원 프로그램 및 PPP 프로젝트 개발·참여 상담	한국수출입은행, KIND, 서울보증보험

■ 참가 신청 안내

- ADB 프로젝트 설명회 및 1:1 프로젝트 설명회 참가 신청 안내

- **신청 방법**: KOTRA 무역투자24 사업 신청 → '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' 검색 후 프로젝트 설명회 및 1:1 프로젝트 설명회 참가 신청 또는 아래 QR코드 스캔 후 신청



설명회 신청



상담회 신청



ADB 연차총회

- **요청사항**: ①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(GPP) 2023 참가 희망 시 ADB 연차총회 참석 등록 필수*
② 원활한 상담 주선을 위해 사업 신청 시 기업 소개자료 필수 첨부
* ADB 연차총회 참석 등록 절차는 추후 KOTRA 측에서 일괄 안내 예정
- **문의처** : KOTRA 인프라에너지산업팀 / ☎ 02-3460-7489 / jongeun@kotra.or.kr

○ 공급망 소식통 ③ : 한국무역협회 지원사업 소개

■ 한-미 관세정책 및 통관이슈 사례 세미나 (4/24)

- ▶ 일 시 : 2023년 4월 24일 월요일, 오후 1시 30분~5시
- ▶ 장 소 :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
- ▶ 언 어 : 영어 (한-영 동시통역 제공)
- ▶ 주 제 : 한·미 양국 관세·통관 정책 바로 알기
- ▶ 주 최 : 한국무역협회, 한미경제협의회, 주한미국상공회의소, 미국 관세국경보호청(CBP)
- ▶ 대 상 : 약 100명
- ▶ 문 의 처 :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 (☎ 02-6000-5549)

● 프로그램

1:30 pm - 2:00 pm	등록	
2:00 pm - 2:10 pm	오프닝 (개회사 및 축사)	
2:10 pm - 3:50 pm	미국 관세국경보호청(CBP)	- 올해 CBP 집행 우선순위 개요 - 공급망 실사, 사전 심사 프로그램 외
3:50 pm - 4:50 pm	한국 관세청	- 2023년 관세행정 동향 및 개관 - 2023년 기업심사 운영방향 및 수입기업 유의사항 외
4:50 pm - 5:00 pm	폐회사	

■ 2023년도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(한-중 FTA & RCEP)

우리 중소·중견기업들의 한-중 FTA 및 RCEP 등 특혜관세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현장방문 업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
- 지원 대상 : 중국 및 RCEP 체결국 대상 수출 및 수출희망 중소·중견기업 100여개사(전국 단위)
- 지원 내용
 - ① 한-중 FTA, RCEP 활용 관세/통관 컨설팅
 - ② 해외인증 컨설팅
 - ③ 지재권 분쟁 / 계약 컨설팅
 - ④ FTA원산지관리시스템 컨설팅

* 중복지원 가능
- 신청 방법 : (온라인) FTA 통합플랫폼 신청 / okfta.kita.net
(전 화) 국번없이 1380 (1번 누르고 차이나데스크 연결 요청)

글로벌 경제지표('23. 4. 19. 수)

[환율]

	'21말	'22말	'23.3말	4/17	4/18	4/19	전일비	22말비
₩/U\$	1,188.80	1,264.50	1,301.90	1,311.10	1,318.60	1,325.70	0.54	4.84
선물환(NDF, 1월물)	1,190.00	1,265.30	1,298.80	1,309.10	1,316.00	1,318.80	0.21	4.23
₩/CNY	186.51	181.44	189.13	191.08	191.59	193.08	0.78	6.42
₩/¥100	1,032.48	945.56	979.61	979.02	981.61	984.33	0.28	4.10
Y/U\$	115.14	133.73	132.90	133.92	134.33	134.68	0.26	0.71
U\$/EUR	1.1318	1.0617	1.0890	1.0987	1.0940	1.0952	0.11	3.16
CNY/U\$	6.3681	6.9630	6.8670	6.8713	6.8716	6.8930	0.31	△1.01

* '22년 평균 환율: (₩/U\$) 1292.2원, (₩/¥100) 983.8원, '23년 평균 환율('23.1.1~현재): (₩/U\$) 1283.6, (₩/¥100) 968.7원

[유가/원자재] (원유 \$/배럴, 철광석, 비철금속 \$/톤)

구분	'22년 최저(해당일)	'22.12.31	'23.4.17(전일)	'23.4.18				
					전일비(4.17)	'22년최저비	'22년말비	
원유(두바이)	71.83(12.12일)	78.77	85.93	84.69	△1.2	12.9	5.9	
					△1.4%	17.9%	7.5%	
철광석	79.50(10.31일)	117.35	120.00	120.45	0.5	41.0	3.1	
					0.4%	51.5%	2.6%	
비철금속	구리	7,000.00(7.15일)	8,387.00	8,985.00	8,966.00	△19.0	1966.0	579.0
						△0.2%	28.1%	6.9%
	알루미늄	2,080.00(9.28일)	2,360.50	2,364.50	2,401.00	36.5	321.0	40.5
					1.5%	15.4%	1.7%	
	니켈	19,100.00(7.5일)	30,425.00	24,455.00	24,960.00	505.0	5860.0	△5465.0
						2.1%	30.7%	△18.0%

[반도체]

	'21	'22	'23.1월	'23.2월	'23.3월	4/14	4/17	4/18	4월(~18)
D램(8G) 현물가(\$, 기간평균)	3.99	3.07	1.93	1.83	1.71	1.63	1.63	1.63	1.64
(%, YoY)	29.9	△23.0	△48.2	△52.9	△55.5	△53.8	△53.9	△53.6	△54.6
낸드(128G) 현물가(\$, 기간평균)	6.55	7.25	6.51	6.46	6.42	6.39	6.39	6.39	6.39
(%, YoY)	14.7	10.7	△13.7	△15.5	△18.7	△21.5	△21.5	△21.6	△20.9

[SCFI(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)]

구분	'21.12.31	'22.12.30	'23.3.24	3.31	4.7	4.14		
							전주비(3.31)	'21년말비
SCFI	5046.66	1107.55	908.35	923.78	956.93	1033.65	8.0%	△6.7%

[BDI(Baltic Dry Index, 발틱운임지수)]

구분	'21.12.24	'22.12.23	'23.3.14	3.31	4.6	4.14	4.17		
								전주비(4.6)	'21년말비
BDI	2217	1515	1489	1389	1560	1435	1412	△1.6%	△6.8%



뉴스레터를 만드는 사람들

산업통상자원부	산업공급망정책과
한국무역협회(KITA) 공급망분석팀	김 경 훈 김 희 영 박 가 현 도 원 빈 최 수 빈 허 슬 비
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	이 병 옥 신 재 훈 이 윤 지
에너지경제연구원(KEEI) 미래전략연구팀	석 주 현

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[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]

문의

산업분석실 (한국무역협회) : gvc_research@kita.or.kr
 공급망모니터링실 (KOTRA) : gvc_monitoring@kotra.or.kr

<구독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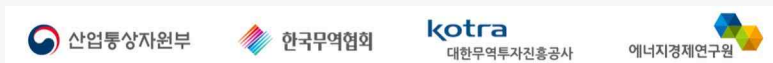
※ 메일 구독(수신) 신청 :
<https://forms.gle/twC4m3uNTm14t2sR8>

<피드백>

※ 피드백하러 가기 :
<https://forms.gle/sftFKhLd4Xh49pxu9>



주관기관



협력기관

